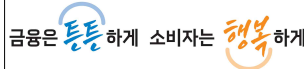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보도	2024.4.24.(수) 석간	배포	2024.4.23.(화)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책임자	팀 장	양유형	(02-3145-8050)
		담당자	선임조사역	안상현	(02-3145-8052)
'24.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 개 요

□ '24.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말(0.45%)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36%) 대비 **0.15%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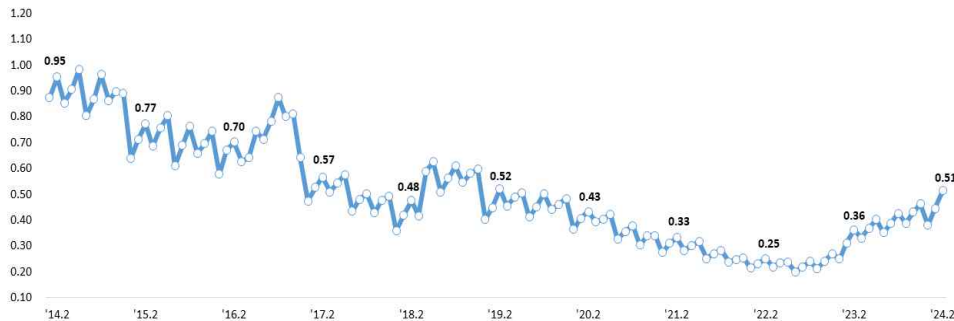
○ '24.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9조원)과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전월('24.1월 신규연체 2.9조원, 정리규모 1.3조원)과 유사

	('22.2월)	('23.2월)	('23.9월)	('23.10월)	('23.11월)	('23.12월)	('24.1월)	('24.2월)
*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0.9	1.9	2.2	2.4	2.7	2.2	2.9	2.9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0.5	0.8	3.0	1.3	2.0	4.1	1.3	1.3
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	0.4	1.1	△0.8	1.0	0.8	△1.9	1.5	1.6

○ '24.2월중 신규연체율('24.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1월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3%)과 동일 [전년 동월(0.09%) 대비 **0.04%p 상승**]

* 신규연체율(%): ('23.2) 0.09 → ('23.10) 0.11 → ('23.11) 0.12 → ('23.12) 0.10 → ('24.1) 0.13 → ('24.2) 0.13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14.1월~'24.2월)



※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 부문별 현황

□ (기업대출) '24.2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59%)은 전월말(0.50%) 대비 **0.09%p 상승** [전년 동월말(0.39%) 대비 **0.20%p 상승**]

○ 대기기업대출 연체율(0.18%)은 전월말(0.12%)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09%) 대비 **0.09%p 상승**]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0%)은 전월말(0.60%) 대비 **0.10%p 상승** [전년 동월말(0.47%) 대비 **0.23%p 상승**]

- 중소기업인 연체율(0.76%)은 전월말(0.62%) 대비 **0.14%p 상승** [전년 동월말(0.52%) 대비 **0.24%p 상승**]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6%)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39%) 대비 **0.22%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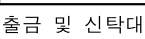
□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0.42%)은 전월말(0.38%)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32%) 대비 **0.10%p 상승**]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7%)은 전월말(0.25%)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말(0.20%) 대비 **0.07%p 상승**]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84%)은 전월말(0.74%) 대비 **0.10%p 상승** [전년 동월말(0.64%) 대비 **0.20%p 상승**]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연체율 시계열 ('14.1월~'24.2월)	'21.2월	'22.2월	'23.2월 (A)	'23.12월	'24.1월 (B)	'24.2월 (C)	증감	
								전년동월 (C-A)	전월 (C-B)
기업대출		0.43	0.30	0.39	0.41	0.50	0.59	0.20	0.09
대기업		0.36	0.23	0.09	0.12	0.12	0.18	0.09	0.06
중소기업		0.44	0.32	0.47	0.48	0.60	0.70	0.23	0.10
중소법인		0.59	0.42	0.52	0.48	0.62	0.76	0.24	0.14
개인사업자		0.26	0.20	0.39	0.48	0.56	0.61	0.22	0.05
가계대출		0.22	0.19	0.32	0.35	0.38	0.42	0.10	0.04
주택담보대출		0.14	0.11	0.20	0.23	0.25	0.27	0.07	0.02
가계신용대출등		0.40	0.37	0.64	0.66	0.74	0.84	0.20	0.10
원화대출계		0.33	0.25	0.36	0.38	0.45	0.51	0.15	0.06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4.2월말 연체율(0.51%)은 전월말(0.45%) 대비 0.06%p 상승하였으며, 전월 대비 상승폭은 '24.1월(+0.07%p)과 유사

* 연체율(%) : ('19.2) 0.52 → ('20.2) 0.43 → ('21.2) 0.33 → ('22.2) 0.25 → ('23.2) 0.36 → ('24.2) 0.51

○ 은행 연체율은 '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 코로나19 이전 10년('10년~'19년) 평균 연체율은 0.78%

○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과거 대비 크게 개선되어 관리 가능한 수준

* 구 분 (%)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p
대손충당금적립률	93.6	104.2	112.1	138.3	165.9	227.2	214.0
총자본비율	15.24	15.41	15.26	16.52	16.49	16.01	16.56

† 총자본비율은 20개 국내은행 기준

※ 통상 분기말(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23.12월말은 전월 대비 △0.08%p 하락)이 있어 3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